

초고속 인터넷 대중화 시대, 국내 가입자 6백만명 넘어

국내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가 6백만 명을 넘어섰다.

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말 4백만명을 넘어선 초고속 통신망 가입자 수는 올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3월 말 5백만명, 6월 말 현재 6백만명을 넘어섰고, 올 연말에는 7백5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자별로는 한국통신이 3백10만명으로 50%의 점유율을 보였고, 하나로 통신 25%(1백58만명), 두루넷이 17%(1백5만명)로 3사의 가입자가 92%에 달한다.

접속방식별로는 비대칭디지털가입자망(ADSL) 가입자가 3백50만명을 넘어섰고, 케이블TV방식이 1백95만,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한 구내 LAN방식도 78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LAN방식 인터넷은 대부분이 순수 국산 기기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장비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통신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는 등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통신은 삼성전자 ADSL장비를 지난해 보

다 절반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고 하나로통신은 아파트에 국산장비를 이용한 LAN방식을 확대 공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힘입어 대도시 뿐 아니라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중심으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계속 증가 추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05년까지 모두 20조원을 투자해 전체 가구의 84%인 1천3백50만 가구에 평균 20Mbps급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통신가입자에게는 최고 2Mbps급의 이동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위성통신 이리듐

지난해 서비스 개시 1년만에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닷을 내린 이리듐 위성통신 서비스를 기억하는가. 1990년 모토로라가 처음 위성통신의 개념을 주창한 이래 50억달러의 사업규모로 성장한 이리듐 사업은 5만5천여명의 가입자만을 유치한 채 재정적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사업의 포기에 따라 이미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66개의 통신위성은 폐기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리듐 새틀라이트(Iridium Satellite LLC)가 인수에 나서 올해 하반기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통화가 가능한 이리듐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리듐 새틀라이트는 이미 미군과 2

만대의 이리듐 휴대폰 공급계약을 맺고 수익성 호전을 기대하고 있다. 또 이리듐 새틀라이트는 저렴한 합리적인 요금제를 통해 다른 국제 로밍 서비스와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용료는 분당 과금되는 정량제. 이리듐 휴대폰끼리의 통화는 분당 0.99달러, 종류가 다른 통신 기기와의 통화는 분당 1.5달러이다. 사용자는 이 요금만 지불하면 지구상 어디에서나 무선 통신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통화료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리듐은 원자번호 77번의 금속 원자이다. 당초 77개의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에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기술적 검토를 마친 후 모두 66개의 위성으로 운영중이다.

현재 고도 3만6천km의 정지위성을 이용한 위성통신이 특수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 경우 이용자의 단말기와 통신위성과의 자료전달에 시간이 걸려 통화지연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동전화와 비슷한 품질의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화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이 필요하다. 이리듐 위성은 지상 7백80km의 저궤도를 돌며 전 세계 통신망을 단일 통화권으로 묶는다.

현재 이리듐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는 팩스 전송속도 수준인 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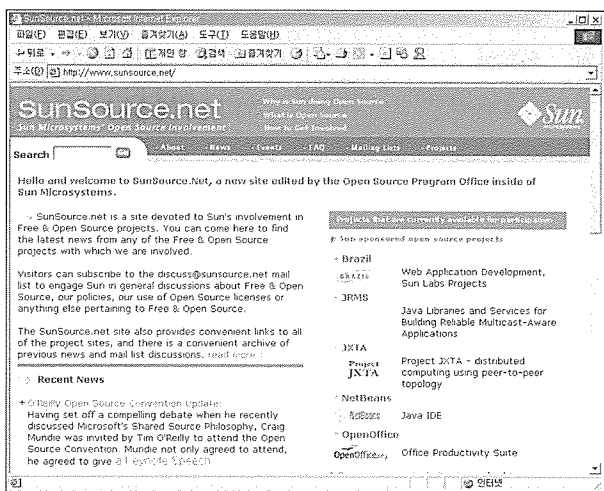
10Kbps에 불과하다. 전화회선을 이용하는 모델이 56Kbps를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대용량 데이터를 전하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리듬은 기존의 전화망이 닿지 않는 지역이나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산간 벽지에 e-메일이

나 데이터 서비스를 전송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리듬이 최초 서비스 시작 때와는 달리 수익성 제고를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고는 해도,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에 뛰어들어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다. 작년에 보다폰과 킨컴이

구성한 글로벌스타(Globalstar) 역시 막대한 투자비 회수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이면 알카텔의 스카이브리지(SkyBridge)와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텔레디식(Teledesic)도 위성통신 사업에 뛰어들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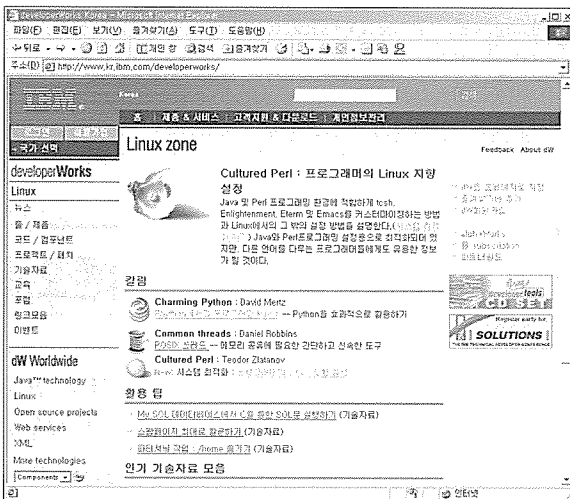
개발자 지원으로 시장 확대를 노린다.

정보를 만날 수 있다. 또 리눅스에 관심있는 이들과의 정보 공유는 물론 각 포럼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가능하다. 또한 IBM은 리

특징 중 하나인 파티셔닝 기술을 이용해 수천대의 가상 메인프레임을 생성하므로, 메인프레임을 불하받은 개발자들은 스스로 개발한 솔루션을 가상 메인프레임 상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IBM의 리눅스 홈페이지(<http://www.ibm.com/linux>)에서 등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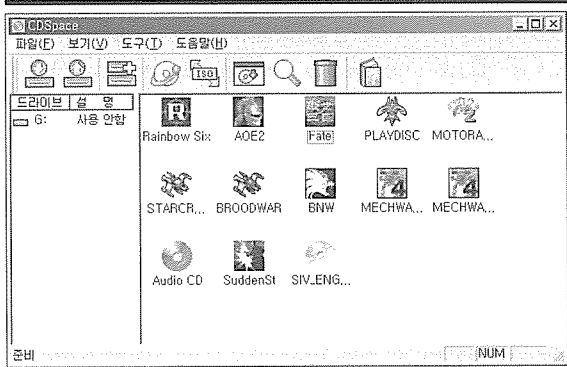
전사적으로 리눅스를 지원하고 있는 IBM은 리눅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리눅스 개발자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IBM의 메인프레임을 개발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IBM 리눅스 사업본부는 기존 영문으로 제공되고 있던 디벨로퍼 워크스(Developer Works)의 한글판인 리눅스존(www.kr.ibm.com/developerworks)을 오픈하고 리눅스 개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IBM 자료는 물론 학계, 우수 개발자들의 개발물, 프로젝트, 패치 등과 뉴스, 교육자료 등 리눅스에 관한 유익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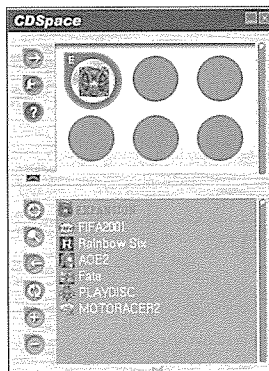
리눅스 개발자들이 IBM의 메인프레임 상에서 무료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가상서버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IBM 메인프레임

한편 리눅스와는 다른 각도에서 오픈소스를 지원하고 있는 썬마이크로시스템즈는 지난 5월 말 자사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한 곳에 집약한 썬소스닷컴(www.sunsource.net)을 개방하고, 썬의 모든 무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이 곳에는 8백만라인 이상의 소스 코드가 공개된 5개의 프로젝트와 썬이 참여하고 있는 10개의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



가상 CD-ROM 드라이브로 간편하게

는 번거로움 없이 게임이나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 CD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PC방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주로 이용된다.



이러한 가상 CD롬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몇가지 제품

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제품별로 특정 CD가 인식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고, 또 최근에는 CD 타이틀 제작업체에서 불법 복제를 방지할 목적으로 각종 복제방지 장치를 추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페이스 인터내셔널이 최근 출시한 CDSpace 4.0 버전은 CD롬 타이틀의 복제방지 장치까지 그대로 구현해 거의 대부분의 CD를 실행할 수 있다. 또한 CD 이미지 생성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압축률 향상, DVD롬 지원, 다양한 형식의 CD 이미지 파일의 실행 등 편리한 기능이 추가되었다.

스페이스 인터내셔널은 이 제품이 불법복제를 조장할 목적이 아니라 CD롬 드라이브의 모든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100% 동일하게 구현하려는 연구개발의 성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정품 CD 구매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확보한 합법적인 사용권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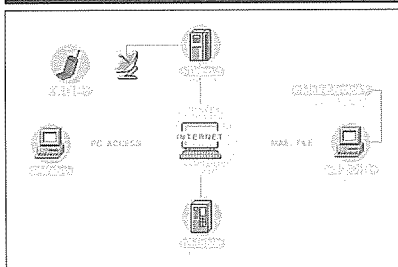
개발사는 올해 안으로 중국어, 영어, 일어 등 다국어 버전 개발을 완료하고 대만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해외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국산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보이는 분야가 또 하나 추가될 전망이다.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등 대작 게임의 성행과 더불어 게임매니아, PC방 관련업계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가상 CD롬 드라이브 유틸리티 CDSpace가 그것.

스페이스 인터내셔널(대표 심재석)이 개발한 CDSpace는 PC에 가상의 CD롬 드라이브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CD롬 타이틀의 내용을 하드 디스크에 이미지파일로 복사해 CD드라이브보다 빠른 속도로 실행시킬 수 있다.

한번 설치하면 매번 CD를 갈아끼우



사무실 PC, 휴대폰으로 접속한다.

전문업체인 (주)인투모바일(대표 전상욱)과 제휴를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정이나 회사의 PC에 접속하고 파일 관리, 이메일 관리, 주소록 확인 등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MyPC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단말기를 보유한 019PCS 가입자는 무선

인터넷 이지아이에 접속, 인터넷에 연결된 개인 PC에 직접 접속할 수 있다. 또 방화벽(firewall)이 설치되어 있는 기업체의 PC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PC에 접속하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찾아보고 관리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가정이나 직장에 있는 자신의 PC에 접속해 이메일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LG텔레콤(대표 남용)은 무선인터넷

로터스 노츠, 넷스케이프 메일과 유더라 등 대부분의 메일 클라이언트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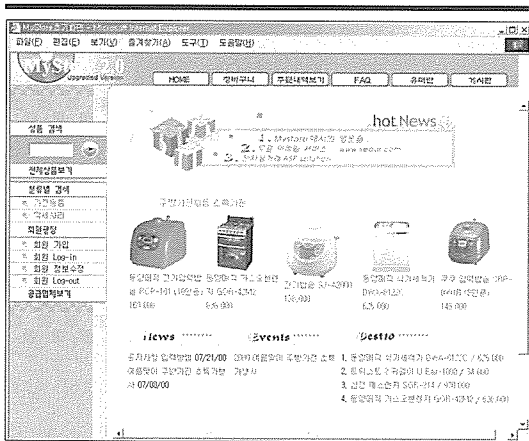
그리고 일정, 연락처를 조회하고 편집할 수 있고, 새로 도착한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새 메일 작성도 가능하다. 또 개인 PC내 저장된 파일을 조회하고 삭제하거나, 이메일에 첨부해 발송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파일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 PC접속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MyPC 소프트웨어를 PC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MyPC 소프트웨어는 이지아이(www.ez-i.co.kr)에 접속, 회원에 가입한 후 메일/뉴스에서 무료로 다운

로드 받으면 된다.

MyPC 서비스 이용방법은 MyPC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PC에 설치한 후 이지아이에 접속, 1.메일/캐릭터→7.MyPC를 선택하면 되며 LG텔레콤은 MyPC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7월까지 무료로 서비스하고 8월부터 월정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손쉽게 구축하는 인터넷 쇼핑몰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IBM의 패키지는 서버테크의 전자상거래 솔루션 'MyStore 2.0'과 i-Heart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서버 호스팅 서비스, 그리고 IBM의 웹서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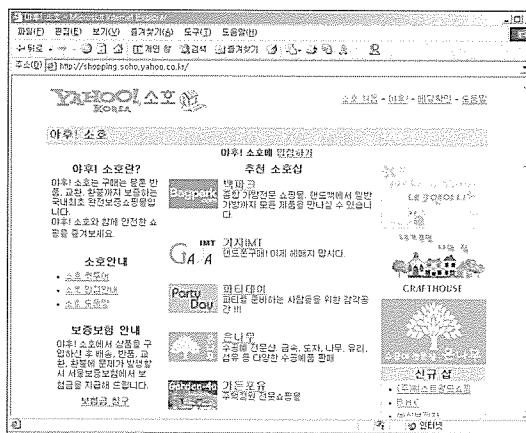
으로도 쇼핑몰 디자인 변경이 가능하며, 자체 내장한 DB를 이용하므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

서버호스팅 서비스는 기가급 백본망에 직접 연결하여 초고속 접속환경을 제공한다. 서버 호스팅 관련 모든 스

중소기업이나 소호의 경우에도 간편하게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는 패키지형 쇼핑몰 솔루션이 공급된다.

한국IBM(대표 신재철)은 복잡한 서버 관리 및 가격 부담으로 자체적인 전자상거래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웹서버와 쇼핑몰 솔루션, 인터넷회선을 묶은 보급형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쇼핑몰 서버 호스팅을 이용하는 경우, 하나의 서버에 여러 고객의 홈페이지를 중복 설치함으로써 많은 과부하를 초래하지만, 이 전자상거래 패키지는 일대일 서버 호스팅으로 하나의 서버에 하나의 고객만을 유치하여 빠르고 원활한 전자상거래가



'x시리즈 330'으로 구성돼 오는 8월 말까지 판매된다.

전자상거래 솔루션 MyStore 2.0은 간편한 설치, 4개의 템플릿을 이용한 서비스 자동 구축, 관리자 모드 기능을 제공한다. 간단한 HTML 지식만

위칭 및 장비 네트워크를 듀얼로 구성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 맞춤형 e-비즈니스 호스팅을 지원한다.

패키지형 솔루션 외에 야후코리아(대표 이승일)가 제공하는 임대형 쇼핑몰도 눈여겨 볼 만하다.

월 4만4천원의 임대료만으로도 온라인쇼핑몰, 전자결제시스템, 주문배송시스템,

상점신용보증을 일괄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지난 7월부터 야후!소호란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㉓

李 懸 (동아시아언스 기자)